

#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CARE POLICY NARRATIVE FROM SOUTH KOREA | 21 – 01K

## DETERMINANTS OF PAID ELDER CARE SERVICE US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CAREGIVER AND THEIR HOUSEHOLD

Seung Eun Cha

노인 유급돌봄서비스의 활용과 활용시간에 대한 결정요인분석

### POLICY HIGHLIGHTS

- 이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가족돌봄시간이 늘어나면 유급돌봄시간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부적인 선형관계를 예상한다. 그런데, 실제 유급돌봄서비스로 활용과 주돌봄자의 실제돌봄시간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건강이나 기능제한이 위급한 시점에 유급돌봄서비스가 활용되는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실제 노인의 상태가 여러 지원과 공조를 요구하는 상황임을 암시한다. 즉, 현재 유급돌봄서비스가 활용되는 상황은 가족돌봄이 작동하기 어렵고 힘든 돌봄의 영역을 유급돌봄서비스가 해결해 주고 있거나, 혹은 전체 노인 돌봄필요의 총량에서 유급돌봄서비스가 아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공식돌봄체계의 구축과 확장이 필요한 만큼 가족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돌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로 유급돌봄서비스 활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는 아직까지 돌봄에 대한 젠더 규범이 돌봄의 맥락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노인돌봄의 맥락에서 딸 돌봄자가 서비스활용시간이 길다는 것은 주돌봄자로서 노인을 돌볼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 돌봄제공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배우자나 며느리보다 돌봄에 있어 작동하는 젠더 문법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돌봄에서 젠더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 Research Objective

노인장기요양보험체제 (Long-term Care: LTC) 이후 노인돌봄상황에서 가족들이 가족의 비공식적 돌봄과 유급돌봄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노인돌봄의 공식적인 수순으로 정착했지만, 막상 노인돌봄 맥락에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서비스를 활용하는지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 재가돌봄의 상황에 주목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주돌봄제공자들이 서비스 활용의 상황을 조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노인재가서비스를 활용이 되는지 그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활용도(서비스활용여부, 서비스 활용시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주돌봄제공자의 특성 돌봄대상자인 노인의 특성 그리고 돌봄맥락을 이루는 돌봄시간, 책임 그리고 돌봄제공-수혜자의 가족관계 특성을 점검하였다.

### Data and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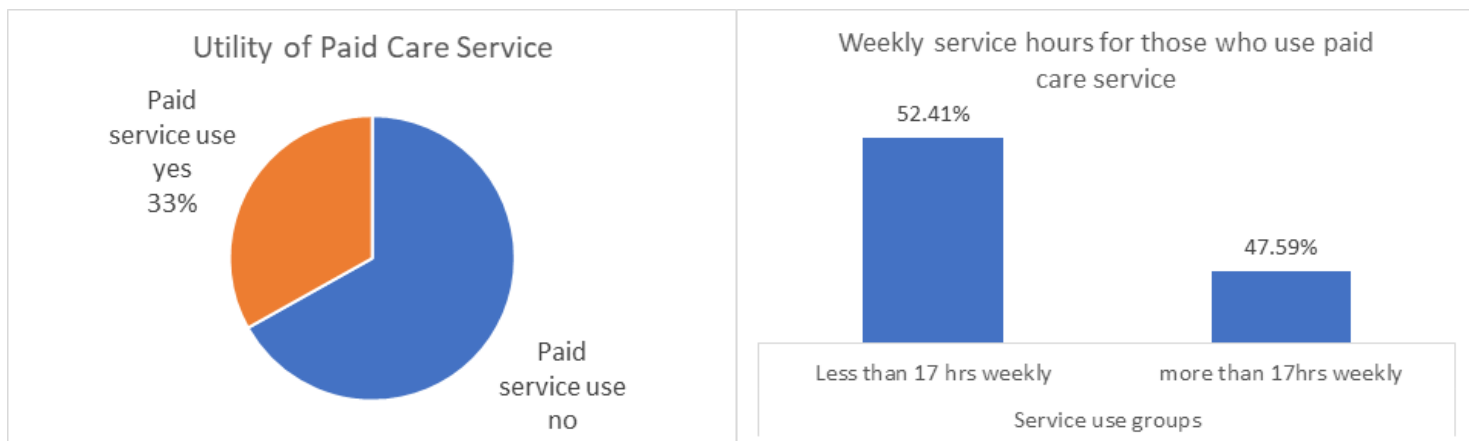
지난 2018에 수집된 한국 노인 및 아동돌봄 가족조사 자료에서 노인돌봄을 담당하는 주돌봄자 500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개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가족돌봄제공자들이 보고한 유급돌봄서비스(LTC 포함)활용도는

#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CARE POLICY NARRATIVE FROM SOUTH KOREA | 21 – 01K



[Figure 1] Proportion of those who utilize paid care services

[Figure 2] Group difference in hours of paid care service

## Data and Results Cont.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6%는 돌봄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가족이 노인돌봄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유급돌봄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가족들의 서비스활용시간은 주당 23시간이었으며, 중앙값은 주당평균 17시간이다. 현재 LTC 서비스에서는 재가돌봄서비스가 하루 3-4시간 활용이 가능하며, 주간돌봄센터(day care)를 활용할 때에는 하루 10시간까지 가능하다. 응답자들의 서비스이용시간을 분포를 살펴보면 LTC 서비스 제한시간에 맞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일부의 경우 그 이외의 추가적인 유급돌봄서비스(간병, 가사도움)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속변수는 유급돌봄서비스 활용여부와 유급돌봄서비스 활용시간(17시간 이상 vs 17시간 이하)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인의 유급돌봄서비스 활용여부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노인의 기능제한, 노인의 건강상태, 주돌봄자의 돌봄기간과 돌봄선호시간양이었다.
- 유급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활용시간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주돌봄자가 며느리나 배우자인 경우 활용시간이 길지 않았고, 다른 가족원의 경제적 도움이 있는 경우 유급서비스활용시간이 길었다.